



1995. 제 11대 총여학생회
정책자료집 2

시정 8-16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

자신의 올림과 빛깔을 드러내고,
변화를 꿈꾸는
시대여학우에게
이영화 한정효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일천여학우의 올림과 빛깔 그리고 변화에 감

사람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따로따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합창을 할 때 제각각의 목소리들이 어울려 멋진 화음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렇듯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조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화 한정효가 준비하는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 대 총여학생회는
저마다의 올림과 빛깔이 어우러져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흔히 선거철이 되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와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기란 힘듭니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영화 한정효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영화 (환조 3)

28대 총학생회 선전부 차장

9대 총여학생회 선전부장

94년 과여학생회장

제 11대 총여학생회장 출마

한정효 (한공 2)

94년 心心풀이 회장

여학생모임 '물바람' 총무

제 11대 부총여학생회장 출마

이런 이야기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대 총여학생회

영화평 '너에게 나를 보낸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만화글 '일하는 손은 빈손이라 아름답다'

동두천 할미꽃

공허한 메아리 : 군제대자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총장님, 총장님, 우리 총장님을 찾아서,

혹은 대학의 이성과 책임을 찾아서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총여학생회가 올해로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학생회를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 총여학생회가 맡았던 역할도, 중심활동도 얼마큼은 변했다. 총여학생회를 흔히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겨지는 자치기구라 이야기한다. 총여학생회는 그야말로 1천의 여학우들이 모여 건설되는 학생회다.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회는 그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삶의 모습들이 모여들어 발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구이다. 이해와 요구를 작은 폭으로 단순히 이기적인 행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대학생으로의 다양한 폭을 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더욱이 여학생들로 구성된다. 학생회가 담아야 할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사고했을 때, 여학생들이 남학우들과 대별되어 겪게 되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여성문제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로 구성된다고 해서 여성문제만을, 여학우들과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시립대의 학생회중 하나이고 그러한 폭으로 사고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방향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회가 그러했듯 총여학생회는 자기길을 찾는데 헤메고 있다. 이 길이 십자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 새로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척하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대 총여학생회'의 모습은 학생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학우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학생회에서 학우들이 멀어져간다는 푸념만을 늘어놓고 있다. 예전의 학생회처럼 획일화된 모습으로 학우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라는 허울 속에 학우들을 집어 넣고 싶어한다. 그러나 학우들의 요구와 관심은 변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지닌 학우들을 하나의 틀 속에 묶어두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다양한 모습과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문화가 활발해진다면 학생회의 발전과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도 가능해지지않겠는가?

총여학생회에 영화제를 하면 영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고 문학비평모임을 하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일 것이다. 더이상 참가한 사람의 수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학원자주화투쟁같은 것은 사람의 숫자와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각각의 모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회에서전체학우들이 함께해나가야 할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회가 힘을 갖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토록 주장되었던 투명한 학생회, 학우들과 토론하고 움직이고, 토론한 거리까지 만들어내는 학생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학생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공개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여성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흐름과 방향을 세워나가며 학우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얼굴을 보아야만 만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학생회와 학우가 만나는 방법은 많다. 학우들이 학생회에서 힘을 느끼고 자신의 공간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로 묶어내는 끈을 만들어내고 학우들의 목소리와 학생회의 활동과 고민이 제대로 만날 수 있을 때이다.

학생회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학우들만 자주 만나면 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학우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회일을 단순히 친구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일과 학우들의 삶을 학생회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정책을 내면서 드는 단상 몇가지

올 94년은 학생회의 뚜렷한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닐텐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그리고 활동과 사고가 공개되고 활동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약속을 했던 작년 선거를 생각해보면, 많은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학우들의 삶과 목소리가 모여들 학생회의 일년을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일 것이다. 이제 선거가 지겨워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선거가 재미있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임과 기구로 생각한다면 학우들도 다시 발동시키는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발동을 찍힐 것을 염려해야 하는가. 건망증이 심한 학생회 간부, 변화와 시대를 읽어내고 움직일 수 없는 불감증에 걸린 학생회 간부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기반성, 현실을 보는 냉철한 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가 다른가, 차별성이 없지 않은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후보는 상대방과 차별성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후보는 두팀이 나오는 것일까.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아무리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에서 비슷하더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학생회와 학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그들에겐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회를 책임질 사람으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더더욱, 학우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학생회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가 아닌가.



너에게 나를 보낸다



어느 선거운동본부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구체적이라는 말이 공약의 남발과 무모한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 공약이 정말 조사되고 연구되었는가,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되었는가 충분히 조사, 연구되고 경험적 결과물로 그 정책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년에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고 비어버린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근거있는, 실행가능한 약속이 될 것이다.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상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 있다. 미래는 예측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이라고 해서 공약을 남발한다던가, 추상적이라고 무조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일 것에 구체적이었는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서 추상적이었는가를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그 미래를 맞이위해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며 반성하고,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1995년 총학생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영화 한정효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 그리고 그 자세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정효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책자료집 1



여유로운 삶, 어우러지기
문화생활

가상의 삶으로 현실의 삶 비춰보기 : 영화제, 영화비평모임

풍부한 교양, 세상보는 눈키우기 : 문학비평모임

다른 사람들의 같은 무대 : 시대여성한마당

이영화 편성료 신기문동문부

영화편

너에게 나를 보낸다.

유지나(영화평론가)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내놓고 포르노그래피적인 표현을 표방해서 화제가 된 영화이다. x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영화 시스템에서 교묘하게 소프트 포르노그래피를 만든 이들이 예술적인 예로티시즘을 궁색하게 찾는터에, 장선우가 스스로 포르노그래피를 자처한 것은 분명 색다른 구석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간다. 일급감독 장선우답게(말초적 성적 쾌락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포르노그래피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성적 담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결국 성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성에 편집증환자내지는 변태적 성에 광신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영화는 포르노그래피 영화처럼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단지 정사장면이 파분한 일상생활을 요약하는 일기장처럼 펼쳐지다보니 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다, 성적행태의 특성으로 인물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의 면모나 그들을 감

싸는 분위기가 포르노그래피적이다. 도색 소설을 쓰는 '나'(문성근)와 속이 다 들어다 보이는 짧은 치마만을 입은 '바지입은 여자'(정선경), 헐리우드 영화의 환상에 살며 발기불능으로 고민하다가 마침내 베스트 소설 작가가되는 은행원(여균동), 그밖에 바지입은 여자를 강간하는 남자와 매춘부를 대주는 여관을 경영하는 이모 등.....

감독은 불거리로 정사장면들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깔린 것들 - 예를 들어 '파쇼'를 외치며 여자 엉덩이를 파고드는 사이비운동가의 물결이라던가 글쓰기가 막히면 여자부터 던치고 보는 정신적인 발기불능자 따위 - 을 통해 비천하고 타락한 현실을 발견하라고 관객에게 권유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성을 주제로 인간관계 양식을 포르노그래피적으로 풀어간다는 이영화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포르노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한다. 오히려 여성은 커다란 엉덩이를 휘두르며 남성욕망의 배설구 노릇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남근중심 신화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다.

바지입은 여자(사실은 엉덩이 큰 여자)는 지적 콤플렉스를 가진 책벌레이면서도 성을 밝히는 분열적인 인물로 설정된다. 그녀가 나라는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나 은행원의 발기불능 남근을 세워줄때는 제법 당당하게 묘사되지만, 그 밖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선 강간의 대상이거나 자발적인 매춘부로 그려지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결국 그녀의 성공도 커다란 엉덩이 때문이다. 왜 남자들은 성관계에 관한 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만큼 성공과 실패를 맛보는데 이 여자만은 계속 섹스의 노예로 지적 허영에 놀아날까? 한국사회가 그런 식으로 성과 권력의 함수관계를 갖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이 영화는 현실의 문제를 당연하다고 재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런점에서 이영화야 말로 한국 사회의 맹점인 과도한 남근중심적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와 일회성 배설행위로 타락한 성행위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는 이 영화는 실제로 여성의 성의 상품화를 구경거리로 제시하기 위해 남성의 흥취보기 시선을 통한 포르노적 쾌락을 관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말에서 자신의 소설을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을, 이런 포르노적인 바닐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것으로 새겨 듣는다면, 이 대사야말로 이영화에서 건질만한 의미심장한 진단이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책자료집 1



건강한 삶의 표출
여학우들의 자신감 찾기
생활체육

죽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구요? : 발야구, 족구 안착화, 여학생 종목신설
슬픈 현실이지만 스스로 지켜야죠 : 호신술 강좌
신나게 놀아보자구! : 놀이문화개발

이말하 권성효 신기문 등 문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

92년이었던기 전날 순천에서 먹치를 타고 서울에 온 적이 있다. 다른 때 같으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요일인 것을 깜빡 잊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이 새벽 3시,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는 공간지 오래고 택시마저도 잡히지 않았다. 겨우 입승을 해서 청량리에 도착한 것이 3시 반쯤일 것이다. 그래도 학교주변인데 리는 생각에 씩씩하게 집으로 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 남자가 뒤따르기 시작했다. 골목을 두번이나 꺾어야 집에 닿을 수 있어서 약간은 긴장을 하고 걸었다. 인침을 걸었는데도 그 시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뒤따라왔다. 첫번 째 골목에 접어들자 뒤에 오던 시림이 걸음을 빨리했다. 괜한 생각이겠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원히 켜진 가로등에 위안을 삼으면서 머리 속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후베네 집을 생각했다. 그 집을 몇걸음 남겨놓지 않았을 때 뒤에서는 기론 숨소리 들렸고 온몸은 초간장이 되었다. 더 걸을 엄두도 못내고 대문을 두들렸다. 후베 이름을 막 부르며 대문을 두드리는데 날 보며 그 시림은 씩 웃었다. 지나치는 그 시림을 보며 역시... 하면서 마음을 가리웠고 열리지 않는 대문을 멍연히 바라보다 집으로 양했다. 모퉁이를 돌면서 설마... 하는 순간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숨죽 들어간 대문앞에 그 남자가 서있는 것이었다. 손을 펼치는 그 시림을 보며 '엄마!' 하고 주저 있었다. 다행히 그 집에서 연편 불이 켜지고 '누구나?' 하는 어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때 그 시림이 인 말이 생각났다. "정남쯤 칠려고 왔더니 되게 그러네."

실연 집을 이사 나올 때까지 학교에서 가까운 길인데도 인 번도 그 길로 가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혼자 집에도 못가서 선배들을 대동하고 가기도 했다. 급기야는 이사를 나옴과 밀었지만 아직도 그쪽 길은 혼자 지날 엄두는 못내고 있다.

공포감과 함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억울함이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다.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었으나 워낙 바쁜 학기중이어서 뭔가 배우러 다닌다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물며 호신술이라도 배워두었다면 그렇게 공포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졸업이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내 몸 하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스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가방안에 칼을 넣고 다니기도 뭘했다. 호신용으로 운동 한가지쯤은 배워야지 하는 마음에 검도를 시작했다.

크게는 범죄라고 작게는 공포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가슴조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희생속에서 극소수의 욕구충족만을 향해 발전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범죄가 없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어쩌면 현실에 분노하고 칼을 던진 지존파보다 더 잔인한 놈들이 몇 톨 이익을 위해 생때같은 생명들을 앗아간 부실공사를 한 놈이나 피같은 서민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입닥아왔던 놈들, 그런 놈들 등쳐먹고 사는 정치하는 놈들일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가 만연한 사회를 우리는 구조적 모순이 많더라 말하며 분노하지만 이런 분노가 공포감으로 일상생활을 억누르지는 않는다는 것이 또하나의 딜레마이다. 사람들이 가장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인권을 거스르는 범죄행위나 실질적인 폭력이다. 살인, 성희롱, 강간, 구타 등. 더구나 신변보호에 거의 능력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폭력행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린다. 한번이라도 공포감에 시달린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당시로 모든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달이라도 그 공포는 비슷한 시간이 나 장소를 만나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심한 경우는 생활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 사회의 불합리가 낳은 범죄는 당연히 이 사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치안의 확보,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의 근절이란 요원할 뿐이다. 사회전체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욱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다. 우리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남들이 아주 사소하다고 말하는 공포감조차도 이겨 낼 힘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구성원 전체의 큰힘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몸 하나를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데는 나의 작은 힘 하나가 필요하다. 몇가지 호신술만 제대로 익혀도 일상에서 겪는 공포는 멀쳐 버릴 수 있다. 검도를 배운지 겨우 6개월 쯤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밤길은 무섭지만 예전처럼 공포스럽진 않다. 손에 뭐 하나만 들려 있어도 싸워볼 마음이 생기니까 든든하다. 많은 대학에서 호신술이나 여타의 운동의 출장강의가 시행되고 있다. 시립대에서도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시행되어 여학우들의 밤길을 좀더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대여학우 여러분! 우리도 호신술을 배워 일상의 공포로부터 벗어납시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색자료집 1



여성 / 사회 세상보는 눈키우기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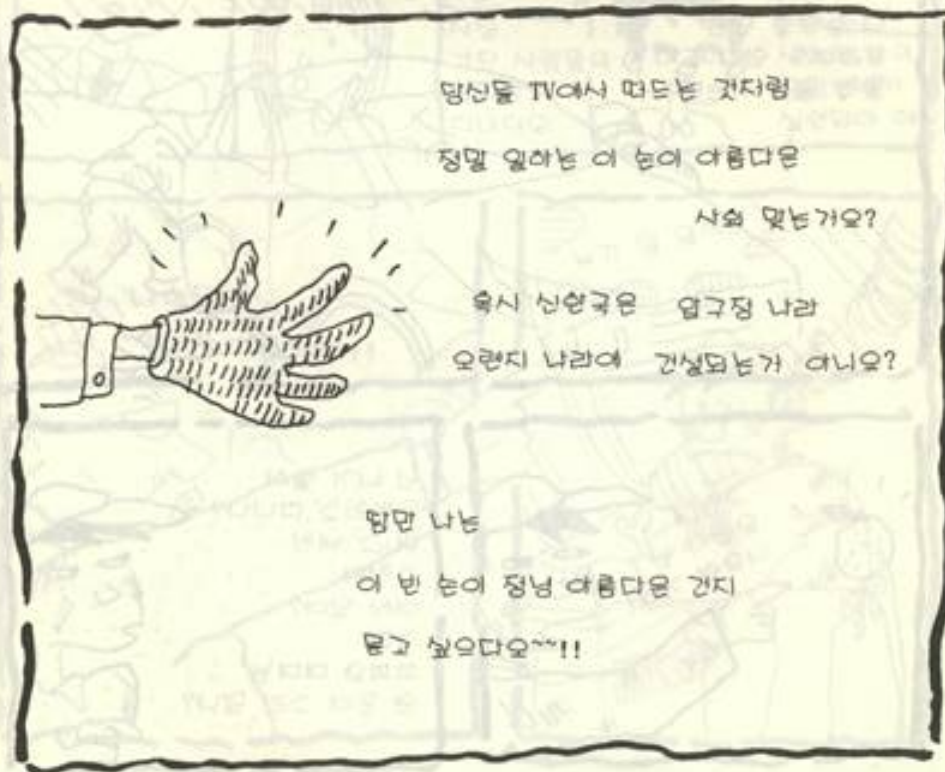
열린 지성, 껍질의 파괴 : 열린 대학
정보야 나오너라! 우리들의 작은 정보센터
혼돈을 뚫고 잔잔히 내리는 빛 : '여학생'전문지 햇살

이명화 현진호 전기운동본부

일하는 손은 빈손이라 아름답다(?)

산디 93 0심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책자료집 1



자주 만날 수록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통로

저마다의 개성 자유로운 어우러짐 : 총여학생회 신문
조그맣고 조그마한 이야기 : 화장실 선전
서로의 목소리 확인하기 : 의견수렴

이원화 현선호 전기운동본부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을 둘러본다
연대활동

삶과 삶, 부딪침과 깨우침 : 기지촌활동
뜻뜻한 인정, 삶의 이야기 : 농촌활동
연대활동의 폭을 넓어지야 합니다.

동두천 할미꽃

오늘은 백순실 할머니의 칠순입니다. 보산동 막다른 집 세번째 방에는 사보이 클럽에서 일하는 김금지, 정복남, 이금순이 찾아왔습니다.

백순실 할머니는 이 발자에 무슨 칠순이냐고 손을 휘 휘 저었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 쟁반을 들고 왔다갔다 하며 맥주도 나르고 안주도 나르고 양주도 나르는 이 오십이 넘은 세 늙은 여자들은 백순실 할머니의 칠순을 축하해주려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백순실 할머니의 별명은 동두천 할미꽃입니다. 동네 꼬마들은 이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동두천에 할미꽃
고부라진 할미꽃
절어서는 왜공주
놓어서는 양공주

이 할머니가 언제 이곳에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할머니는 이 동네에 삼십 년을 살면서 이곳에 들고나는 술한 양색시들을 보아왔습니다. 성미가 팔팔하고 선머슴같은 이 할머니는 화가 나면 대낮부터 깡술을 퍼마시고 옷을 훌렁훌렁 벗어제깅니다 성격이 불같고 말이 걸쭉해 누구나 말 한번 잘못했다간 이 할머니에게 혼쭐이 납니다.

체구가 작고 얼굴이 가름한 백순실할머니는 젊어서는 미군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줄이 넘어서자 미군들은 백순실 할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동두천 바닥에는 실새없이 젊고 싱싱한 여자들이 늘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클럽생활을 그만두고 길거리에 직접나가서 고기를 낚듯 미군을 낚는 '히빠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거리의 여인들은 늙고 물이 둔해져 피물이 되면 클럽에서 쟁반을 들고 술시중을 들게 되는데, 백순실 할머니는 유일하게 쟁반 드는 것을 마다하고 여전히 어두운 골목 아래 서서 술취한 미군을 부르는 것입니다.

백순실 할머니는 화가 나면 혼자 마구 떠들어댁니다. 그 작은 몸뚱이로 천황군대 사단병력 미군 사단 병력을 받아냈다는 그녀는 만주 사변이라면 그 어느 역사 학자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말, 중국말, 영어를 섞어가며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합니다.

“양갈보 정년퇴직하는 날, 그 날이 해방인거여. 고상한 말로 유식 뽀개지 말어. 그래봤자 내 심장에 노크도 안해, 왜 공주로 애국하고 양색시질해서 달리별고 문딩이 몸팔어 애국했어. 어디가서 양갈보 명함 내밀면 느그들이 이년 공덕 알아줘?”

이년아 미국간다고 설레발 치덜말어. 니년이 미국가면 존슨 부인이여? 그리구 미국 갔으면 되오지는 말아야지. 지저리 못난년 미란이는 어쩐자고 못살고 되쫓겨 온다는 거여. 뻔해 해리슨 그놈 전과만 네 번이었지. 또 고깃이 양키들 빠다냄새에 올라나 속이 느글거렸을 거? 인자 미란이 오면 뒷산에 가서 냉이나 실컷 뜯어나 국 끓여줘야지 그제 얼마나 된장국이 먹고 싶었을거.”

미란이는 백순실 할머니의 수양딸로 흑인과 결혼해 미국에 가 한동안 잘산다고 사진도 찍어보내더니 결국 이혼하고 다음주에 아주 귀국한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미란이 얘기가 나오자 백순실 할머니는 상 앞의 소주잔을 훌쩍 입안에 털어 넣습니다.

“자아 뗏들 허구 있는 거여. 아, 칠순잔치 해주러 왔으면 노래두 부르고 춤도 춰야지. 어찌 그렇게 초상 집에 온것 같이 우거지 상을 허고 쪼그리고 앉아 있대?”

정복남 이금순은 “맞어, 맞어”하고 술잔을 높이 쳐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방문을 넘어 보산동 골목 어귀까지 흘러 나갑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동두천은 어두운 밤의 해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동두천 할미꽃.... 백순실, 벌거벗은 알몸으로 받아내고 죽지 않고 살아나 다시 외국군대 사병을 받아내며 줄기차게 살아온 동두천의 인동초,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잔주름진 눈가로 한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매춘, 흑자는 이것이 필요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매춘 여성에 대한 인식이란 여성을 소유관념으로 대상화시키고, 여성의 정조를 버린 창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매춘여성의 삶이란 당사자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외에도 주위의 시선을 비롯한 냉대가 더욱 크며, 이는 자신을 비하시키며 사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데서 끝난다. 우리만의 민족적인 문제로서 치부될것이 아니다. 또다시 동남아 여성들 속에는 한국남성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에서 상품화된 성을 즐기고 있다. 되풀이 하여 지배되는 여성의 성, 우리는 단지 삶의 극소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의 이분화된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한다. 관광 수입을 기성 관광의 차원에서만 활성화하여 나라의 이익은 이익대로 벌어들이고 매춘 여성들은 단지 열등한 의식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연 사회는 매춘여성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무엇을 위해 매춘을 활성화 시키는가?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책자료집 1



생활을 만들고
함께 풀어갑니다

편리한 삶, 꼼꼼이 점검하고 펼쳐내기 : 생활복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 아니 함께 준비합니다 : 사회진출

이임화 원심효 선기운동본부

공허한 메아리

군제대자 가산점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이화여대에서 '군제대자 가산점부여제도(이하 가점제도)는 부당하다'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지상논쟁, 하이텔등의 PC통신등을 장식하면서 사회적인 '이야기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지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가점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받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면서 얼굴에 핏대를 세워가며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지금 역시 똑같은 소리를 내기위하여 또다른 한페이지의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무엇때문인가라는 처음의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보고자 한다.

ξ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문제 핵심의 한축은 여전히 행정부의 태도에 있다. 그리고 또다른 한축은 군대라는 작은 사회에 존재한다. 여타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하듯 이 또한 어느 한지점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없다. 사회제반 여러상황들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행정부의 태도에 관하여

이대학우들의 청원서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살펴보자. 총무처에서 제시한 '제대군인 가산제 관련자료'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문서에서 총무처는 9급시험에서 가산제를 없앨 경우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재의 37.9%에서 52.7%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서 총무처는 '현재상태로도 여성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 주로 8.9급이 담당하는 현장감독, 출장, 단속 업무등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여성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들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행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9급에서 가산제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 야근이나 출장업무를 못해 남성공무원들이 골탕을 먹는다는 소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시장에 이어 여성군수, 파출소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장, 현장지도감독을 못한하는 총무처의 전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닐수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키면 될것이고 출산이나 탁아때문이라면 탁아소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 생기는 문제는 이들의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올바르게 활용할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으로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발휘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많은 능력들에 대하여 '과연 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개발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처음 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서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은 학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당연한 능력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 받아야 한다면 지구의 반을 구성하는 인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와 다른점이 무엇이었는가?

군대라는 사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는 모든 남성들은 일정시기 군복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까지 다양한 곳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은 이 잃어 버린 시간 동안의 보상책으로서 '취업보호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시험에 3%에서 5%까지의 가산점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점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측과 '그 정

도의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만일 여성들이 군대에 간다면 이런 주장을 할수 있었겠는가? 이기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 빠진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군복무 3년이라는 시간을 표현 그대로 한개인의 희생이며 사회의 박탈을 유발한다면 군대라고하는 작은 사회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그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길이 아닐까?

군대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모병제, 혹은 환경을 개선시키자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예산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어온 군비감축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가능한 상황속에서 진행되어져온 것만은 아니다. 대다수의 이해와 용기가 있을때 만이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면』

현재 민자당에서는 남성들의 출산휴가(1년)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 중에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조차도 불필요하다 하여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지만 길게 보아 필요한 법안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국방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안보측면에서 중요하다면 한세대를 낳아 기르는 사회적 재생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일것이다.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오류는 더이상 범할수 없을 것이다. 집안일 -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 은 더이상 어느 한편의 몫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흔히 이 사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마다 회의가 생긴다고 한다. 대다수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이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여학우들 및 교수들이 이기적이라고 한다.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어린 아이들이 철모르고 전쟁의 비참함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내면에는 여자들이 감히 남자들 영역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느냐는 비난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이성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이 기업을 위한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곳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직업훈련원이라고 한탄한지만 말고 이런 문제들의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자. 남학우건 여학우건 어려운 취업전선에서 승리하는 데 경쟁자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우가 아니다. 친구야 어떻게 되건 나만 실력을 키워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살면 그만 인것은 아닐 것이다. 여학우들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시험으로 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기업에서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업의 입사철이다. 아마도 4학년 학우들이라면 한두군데쯤은 원서를 넣어봤을 것이다. 무엇을 느끼는가?

언론에서는 취업제수생이 어떻고 또는 올해는 신입사원을 어느정도 뽑을 예정이고 등등 어렵다는 말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줄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광고를 통해서만 자신있는 '프로여성'을 선보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여성에게 너희들이 못나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든 너희들을 대신한 수많은 여성인력이 남아돌고 있다는 협박이 가능하다. 단순한 눈에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 움켜잡으려하지 말고 더 큰것을 향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다시보는 정책자료점 1



용기종기 모여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봐야 할 이야기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 여학생모임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될 수 있도록 : 남학우도 함께
나는 시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민희 권성규 신기문등분류

총장님, 총장님, 우리 총장님을 찾아서, 혹은 대학의 이성과 책임을 찾아서

1995년 3월 신홍 총장님 임기 만료!

차기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참여가 배제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각 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말은 무성하는데 문제는 방향설정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선뜻 동참할만한 '그 무엇'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는 '이렇게 하겠다/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학우들과 함께 꼭 짚어 봐야 할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1. 30대 총학생회의 임기는 언제 만료되는가

지난 15일 「교수협의회」에서 학생(대표)참여를 배제하는 총장추천위원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이 총학생회 명의의 유인물로 배포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총학생회에서는 각 단대/총여학생회/총학생회 후보단과 선거운동본부 사무장 그리고 1994년 민중시대 중앙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 교협의 행보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제 30대 총학생회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적절하지 않으니 각 선본이 공동으로 대처하면 학우들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회의주재자이신 현부총학생회장님의 말씀이었다.

총장선출 문제를 바라보는 집중점이 총학생회 선거에 임하는 각 선본별로 달랐지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함께 열심히 할 것을 결의하고 헤어졌다.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시급한 사안이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각 선본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성명서 초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6일은 단대학생회 투표일이었다.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한시도 투표함을 떠날 수 없는 날인 것

은 안다. 때문에 16일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이지 않고, 초안 준비 정도나 이후 계획에 대해 문의해 봐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발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고, 학생회 강화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무척 시급한 사안이라고 외치면서 왜 그럴까?

언제부터인가 이즈음만 되면 아름답지 못한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 소위 '떨어지는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은 아름답지도 못할 뿐더러 도대체가 무책임한 소리이다. 일년 학생회 사업의 끝은 차기 학생회 책임자에게 남은 과제와 일년 사업 평가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아직 차기 학생회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장선출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야말로 '후보'인 사람들에게 어디 한번 해 보시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더구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학우들에게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떻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못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30대 총학생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로 이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판단하며, 올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강의 방향과 계획을 모든 학우들에게 제시하여 수렴된 여론을 계획으로 잡아 차기 학생회에서 바로 그리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마련한 이후에 만료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모여보자, 하자라고 웅성거리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제시하고 의견을 구할 때 비로소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2. 목소리 큰 주장, 누구나 인정하는 것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인 학생이 자기대학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

정에서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공허한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成年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더구나 학생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학생들의 대표체인 학생회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옳지 못한 처사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대학은 자본의 질서에 규정받는다. 봉건시대의 대학이 봉건적 질서에 규정받았듯이, 또한 지배적인 질서에 저항하는 힘은 역사 이래로 대학[지식인집단]에서 먼저 형성되고 축적되어왔다.

혹자는 총장선출과정에 학생참여가 명문화된 규정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학생회 탄압 음모이며, 학생운동을 뿌리뽑고자 하는 것이요, 대학을 자본의 질서에 순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실상 교육부[국가]는 그렇다. 그/래/서 '골장' 정부의 의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의도에 장단맞추는 교수님들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도 맞다.

누구나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 이미 우리 것으로 내재화되어 버린 부패한 자본의 논리와 힘은 선명한 구호 몇개와 몇번의 피켓팅으로 거세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만 끊임없는 각성과 환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밀그림은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밀그림의 모양새--누구나 인정하는 것--에 눈을 부릅뜬 때가 아니라 어떤 색을 입힐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3.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총장부재/학생회부재」 설마 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설정하는가 하면, 혹자의 주장대로 실천한다면 그리고 5천 학우가 모두 동참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시립대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꿀리 없다. 교육부가 이리할 진대 교수님들 역시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차기 총장이 임명되었을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새로운 총장이 싫다고 매일같이 모든 학생들이 데모하면 견디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교수님도 교육부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총장문제는 관심도 두지 않으니까 선본을 해체하고 총장선출대책위(?)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이런걸 두고 난형난제(難兄難弟)라 하는가. 선본을 해체하면 차기 학생회는 세워질 수 없다. 그럼 총장도 없고 학생회도 없는 무정부 상태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학생회가 없을 때는, 학생들의 의사가 조금치도 반영되지 않은 총장도 당연히 본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지껏 학생들의 최고 대표체인 총학생회를 벗어난 000대책위가 제역할을 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애시당초 000대책위는 총장선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못한다.

4. 이렇게 되면 좋겠다

먼저 30대 총학생회에서 총장추천과정에서 문제시되는 내용을 학우들에게 충분히 알려냈으면 한다. 여전히 많은 학우들이 지금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몇명이 크게 목청을 높이는 것보다 많은 학우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이미 내년 과학생회장들이 선출되어 움직이고 있는 과거 적지않게 있다. 그리고 올해 과학생회장들이 모두 임기만료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생총회가 많이 잡히고 00인의 밤이 많은 싯점이므로 토론의 자리는 충분히 열려 있다. 새로운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작년의 다짐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이다.

11월 30일면 1995년 서울시립대 학생회를 책임질 사람들이 결정된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으면 한다.

교육부에서 거부하는 명문화를 약속할 교수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아예 학생들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 않을 것이다. 교협의 주요한 교수님들과 학교당국자들과 만나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준비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전달받고 학우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수님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발전에 적합한 총장의 요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학생참여가 아니겠는가. 교수님들의

생각도, 현실적인 대안없이 마냥 반대만 하는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합리적인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총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다. 굳이 학내 교수님 중의 어느 분으로 가능성을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91년에 외부 인사를 반대한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많다. 특히 우리학교 총장에 뜻을 비친 전서울시장 고건씨가 명지대 총장으로 간 다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다. 고질적인 교수 파벌에 학교발전을 담보로 잡히는 것보다는 시립대의 능력과 자랑스러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외부인사라면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하는 것이 시립대의 현실이다.

시립대의 발전과 대학의 전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 새로운 총장으로 오셨으면 한다. 새념을 맞는 과정에서 우리대학 전구성원이 제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합창이 울리기를 기대한다.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는 제11대 총학생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만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1천여 학우와 5천 민중시대인에게,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다짐한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거창하고 외려하고 세련된
무수한 '길도는 말'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삶을 토론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자.
우리 삶 인간운데서 나오는 지식,
자신의 내면에서 석어져 나오는 글을 쓰자.
염을 빼기보다 염을 솟게 하는 글,
'우리'를 만들어 가는
어유와 글거름 속에 쓴 글,
생각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글을 말이다.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